

오역인가 오염인가

오역의 왕국에 사는 오역의 전문가들

글_이재호(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영문학)

몇 년 전에 버트런트 러셀의 《서양의 지혜》(정봉화 옮김, 1960, 을유문화사 '서언序言' 첫머리에 "위대한 저서는 큰 죄악이다"라는 문장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30년 후인 1990년에 나온 이명숙·곽강제 번역서 펴사에서 "위대한 저작치고 엄청난 악이 아닌 게 없다"고 번역해 놓은 것이었다. 이 말은 알렉산드리아 시인 칼리마코스의 말로서, 그리스어로는 "mega biblion, mega kakon", 영어로는 "A great book is a great evil"의 번역이다. 여기서 great는 '위대한'이 아니고 '큰big'이란 뜻이다. 즉, "큰 책두터운 책은 읽기 귀찮다버겁다"란 말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정음사는 소설의 첫 행이 오역이었다. 《율리시스》초판, 1968 첫 행에서 벽 멀리건이 가짜 미사를 올리려고 나선형 층계를 올라가 마틸로 원형 포탑(砲塔) 옥상으로 나왔는데 '내려왔다'고 거꾸로 번역했었다.

지금도 많이 불리고 있는 영국노래 〈그린슬리브즈Greensleeves〉는 셰익스피어의 〈즐거운 아낙네들〉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유명한 노래로서, 사랑했던 남자를 배신한 여자 이름인데도 음악책엔 "푸른 옷소매"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그린슬리브즈가 여자인 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 〈대영박물관 한국전〉이 열리고 있는데, 대표적 전시물 중의 하나가 '푸아비 여왕의 수금Queen's lyre'이다. 그런데 같이 출토된 푸아비상상을 보면 전혀 여왕이 아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도 모두 '왕비'로 번역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Queen만 나오면 남편이 왕인데도 '여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교수조차도, 예를 들면 "찰스가 왕이 되면 다이애나는 여왕이 된다." 영화 〈마고 여왕La reine Margot〉도 여왕이 아니고 실은 '왕비'다.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The Wife of Bath"바스의 여정부"를 '목욕하는 아내'로 번역하는 교수가 있다.

이 글을 쓴 이재호는

1935년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했다. 서울대 영문과 및 동대학원 영문과를 졸업했고, 브리티시 카운슬 스칼라십으로 1962~1963년에 영국 엑서터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방문교수로 1988~1989년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1996~1997년에 보스턴대학에서 연구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장미와 나이팅게일》을 비롯한 50여 권의 번역서와 《장미와 무궁화 영문학 산책》(T. S. 엘리엇)(공저) 《영미시의 수정주의적 접근》(공저) 《영한사전 비판》 등의 저서가 있다.

조지 스타이너의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나》가 두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다. 윤지관 씨 번역과 김석희 씨 번역인데 휘브리시스hybris를 '분노' '분노의 폭발'로 오역했다. 휘브리시스는 "(신에 대한)오만불손"이다.

brother는 '형' 아니면 '동생'이다. 그런데 KBS에서 방영한 〈로마제국 멸망 제6편〉에서 "로물루스는 그의 형제 레무스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번역했는데, "동생 레무스를 죽였다"고 해야 말이 성립된다. 왜냐하면 동생이 하나

밖에 없는데 형제를 죽였다면 로물루스는 자기를 죽여야만 한다. Joseph and his brothers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니고 “그의 형들”이라야 한다. 요셉이 막내니까. Jesus and his brothers는 예수와 “그의 동생들”이지 “그의 형제들”이 아니다. 예수는 장남이었으니까^{마태복음 13:53-8}.

최근에 번역된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관한 책 《영어의 탄생》에서 번역자 이종인 씨는 ‘Modern English’가 ‘근대영어’인데도 ‘현대영어’로 잘못 번역됐고 또 Middle English도 ‘중기^{中期}영어’인데도 ‘중세영어’로 번역했다. Old English^{고영어古英語}와 Middle English는 중세^{Middle Ages}에 속한다. 즉 역자는 영어의 시대를 구분하는 세 가지 말을 모두 틀리게 번역했다.

Octopus라면 서양 사람들의 머리에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문어인데, 《엡센스 영한사전》에는 ‘낙지’만 나와 있고, 다른 영한사전에는 ‘낙지, 문어’로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이문열의 《^{詩人}》영역 《^{The Poet}》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가 A horse with no legs goes a thousand leagues로, ‘말’이 ‘horse’로 오역되어 있다.

정소성의 《아테네 가는 배》(이보경 번역) 영역에는 그리스 시대의 전차^{戰車} chariot가 tank^{영화} (벤허) 참조로 오역되어 있고,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lyric^{서정시}으로 오역되어 있다.

장영희 교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²⁰⁰⁵에는 “헨리 8세의 왕비였던 앤 여왕”이 나오는데 앤 블린 Anne Boleyn은 왕비였지 “여왕”인 적이 없다. 참조. 영화 <천일의 앤> 또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눈가루 Dust of Snow>에서는 ‘hemlock tree’가 ‘솔송나무’인데 ‘독당근나무’로 오역됐다. ‘독당근나무’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1994년 <한국에 있어서의 번역 : 오역과 대책>이란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 정반대 번역이 많은지 놀란 적이 있다. 정역은 머리를 좋게 하지만 오역은 머리를 나쁘게 만든다. 오역을 찾아내면서 놀란 사실은 거꾸로 번역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목이 맨발로, 산봉우리에서 태평양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산봉우리를 쳐다보는 장면으로, 남자가 여자로, 아들이 아버지로, 형이 동생으로, 왕이 왕비로, 꽃잎이 잎사귀로, 앞드려 눕는 것이 그 반대로, 사체가 무너로, 신이 인간으로, 왕비를 여왕으로, 친구를 적수로, 밤을 낮으로 번역해 놓는다.

지금 한국에서 오역과 문화오역의 대가는 소위 한국 최고의 신화학자·번역가라는 이윤기 씨이다. 《이윤기의 그리스·로마신화》의 오역은 곧 출판될 나의 저서 《문화의 오역》에서 철저히 밝혀지겠지만 몇 가지만 예로 들겠다.

그리스문학에서 ‘사랑과 미와 풍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이윤기 씨에겐 ‘음탕한 여신’이다.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는 이윤기 씨가 좋아하는 “아프로디테 포르네움^{음탕한 여신}”란 말을 쓴 적이 없다. 만일 음탕한 여신이었던다면 베르길리우스가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로마 건국의 조상으로 아이네아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를 택했겠는가?

아테나의 탄생신화에서 헤파이스토스가 도끼^{axe}로 제우스의 머리를 찍자 완전무장한 채로 아테나 여신이 튀어나왔는데, 이윤기 씨는 ‘창’으로 쪼갰다고 문화 오역했다. 다이달로스 신화에서 다이달로스가 날개를 만들어 먼저 하늘로 날고 아들 이카로스를 뒤돌아보았다고 오비디우스는 썼는데 “이카로스가 최초의 우주인”이라고 신화를 거꾸로 뒤집었다.

그리스신화에서는 메두사를 본 사람이 돌^{stone}로 변하는데 이윤기 씨는 대리석으로 변했다고 우긴다. 나중에 조각가가 대리석에 메두사를 조각한 것을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한다. 그리스 최고의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테바이 출신 예언자인데 “아테나이 사람”이 되고, 트로이의 목마를 만든 사람이 포키스 사람인데, “아테나이 사람”이라고 쓴다.

이윤기 씨의 오역의 심각성은 그 내용이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교과서에 실린 <길 잃은 태양마차>^{오비디우스 지음, 이윤기 옮김} 첫 1행에서 31행까지는 원문에 없는 내용이다.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라고 해야 할 곳에 난데없이 “나는 오시리스의 아들이다”라고 이집트 신을 끌어들었다. 더구나 오비디우스는 예수보다 39살 연상이고 예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린 시절에 이 도시^{헬리오폴리스}에 잠깐 머물러 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없는 얘기를 삽입했다. 이윤기 씨의 고뻐 풀린 상상력이 빛은 결과다.

이런 이윤기 씨의 《이윤기의 그리스·로마신화》를 서울시 교육청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명성만 듣고 추천했다. 우리는 지금 오역의 왕국 한 복판에 살고 있다. 250권이나 번역했다는 이윤기 씨의 헤라클레스적 작업은 바로 그의 번역이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증명해 주는 그의 아킬레스건이다.

물론 그리스로마신화의 오역은 비단 이윤기 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장왕록 교수의 《그리스로마 신화》번역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역자는 자신이 번역한 판본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한 권의 책이 권위를 가질 때 우리는 오역의 폐해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교과서에 실릴 때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편집자 주 중3 교과서에 실린 <길 잃은 태양마차>에 대한 이재호 씨의 지적 이후 이윤기 씨는 일부 지명과 인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글은 ‘편역’이기 때문에 글 전체가 ‘문화오역’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교과서에 ‘옮김’을 ‘편역’ 또는 ‘평설’로 바로잡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현재 교과서(2004년, 2005년판)에는 ‘옮김’에 각주를 달아 내용이 원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